

보도 자료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순옥	 T.02)788-2758(내선 2758) F.02)788-0343 blog.naver.com/sparksoon twitter.com/chunsoonok 의원회관 633호	
		국회의원			
배포일	‘12. 10. 10. (수)	담당자	조영학 보좌관	H.P.	010-9508-0810

- 최근 3년간 특허청 퇴직 고위공무원 4개 산하기관에
재취업 19명, 기관장도 모두 특허청 출신
- 특허청의 산하기관 ‘일 몰아주기’에 영향력 행사
개연성 높아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민주당 전순옥의원은 10일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특허청 퇴직 고위 공직자들이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정보원 등 4개 산하기관에 재취업한 현황을 지적하며, 특허청 퇴직 공무원들이 “특허청 발주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개연성이 크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다.

전순옥의원은 “지난 3년간 특허청을 퇴직한 4급 이상 고위공무원들 가운데 특허청 산하 4개 기관에 재취업한 사람들이 19명에 달하며, 이들 4개 기관의 기관장들 또한 모두 특허청 공무원 출신들”이라며, “이들은 특허청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쳐 자신의 소속 기관에 사업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창구 역할을 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특허청은 여타 부처에 비해 수의계약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전순옥 의원실이 특허청의 자료를 받아 분석한 바에 따르면, 특허청의 2012년 자체 발주 사업 중 경쟁입찰로 계약을 체결한 사업은 48억임에 반해, 수의계약은 1,030억원에 이른다.

이에 전순옥의원은 “특허청 업무의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수의계약률이 지나치게 높으며, 이 중에서도 산하기관과의 계약률이 50%가 넘는다”며, “특허청 퇴직 고위 공무원들이 이 과정에서 로비 창구 역할을 하고 있을 개연성이 크다”고 밝히며, “공직사회에 만연한 낙하산 인사, 전관예우 관행은 반드시 사라져야 할 사회적 악습이며, 법적,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근절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